

캐릭터 대전시대... 군산시 도전장

(大展)



시간여행축제 플라마켓 '떡방이와 친구들' 인기 관련 상품 판매 호조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군산세관 특설창고에서 '군산세관의 시간을 푼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떡방이와 친구들' 플라마켓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플라마켓에서는 지역소상공인들이 '떡방이와 친구들'을 활용한 쿠키 및 아이싱 체험, 페이퍼토이 만들기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펼쳤으며, '떡방이와 친구들' 캐릭터를 조성해 계획하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군산세관 특설창고에서 '군산세관의 시간을 푼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떡방이와 친구들' 플라마켓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고 있는 세빌스 호텔에서 1900년대 초 프랑식 카페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군산시민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문태현 마술쇼', '지역먹거리 먹

기 떡방이 선발대회', '떡방이버스 셔를 체험' 등을 열어 행사장을 찾은 수천명의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떡방이와 친구들'의 저작권을 공유한 '월령공

방', '수공예 협동조합' 등은 플라마켓에서 관련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월령공방' 두장혁 대표는 "매년 시간여행축제에 참여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군산을 상징하는 '떡방이와 친구들' 상품을 제작해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아이에서 개발한 시민주도형 지역캐릭터 '떡방이와 친구들'은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수익증대를 위해 지역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저작권을 배포, 공유해오고 있다.

군산문화협동조합 G로컬아이 관계자는 "이번 시간여행축제기간 동안 군산 근대역사건축물의 상징인 군산세관과 어우러진 '떡방이와 친구들'의 플라마켓은 그자체로 매우 뜻깊은 행사였으며 이와 관련한 상품판매 호조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봉사·나눔문화 확산 실천 '맞손'

익산시 읍면지역-국제라이온스협 전북지구 익산클럽

익산시 읍면지역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익산지역 클럽은 19일 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 지역사회 봉사·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4일 익산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와 업무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함영읍, 오산·황등·함라·옹포면 등 15개 읍·면장과 익산·백제·이리라이온스 등 18개 익산지역 라이온스클럽 관계자가 참여했다.

읍면지역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익산지역 클럽은 각 매칭을 통해 읍면지역의 복지사업 해소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의 특산품

을 구매하는 등 지역문제를 함께 공유한다. 또한 공익활동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지난달 24일 익산시의 전북지구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곧바로 읍면지역과 익산지역 클럽 간 업무협약이 체결돼 보다 밀도 있는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양 기관이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 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길 전북지구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익산지역 클럽과 읍면지역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군산해경 소속 신설된 과학수사팀 수사요원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현장감식과 과학수사기법을 연구하는 합동 현장실습을 9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日 오카야마 현립대학과 협정

군산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에서는 X-Optimus 교육 플랫폼 세부프로그램인 Global X-Optimus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과 군산대학교 산학융합공과대학 간의 해외 인턴십을 고려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학교 산학융합공과대학에서 체결된 협약에서는 오카야마 현립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와 군산대 프라임사업단 관계자 등이 양교 간 학술 및 문화교류 방안,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해외 인턴십을 고려한 학생교류를 목적으로 맺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교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협약 결과 양교는 ▲교직원 및 연구원 간 학술 교류 ▲양교 학생 간 인턴십을 포함한 교류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 공동 개최 ▲연구를 위한 집회 및 모임 활성화 ▲교과자료 및 정보 공유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카야마 현립대학은 1993년에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공학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학부생 1,600여명, 석·박사 200여명 규모이고, 교직원 380여명에 이르러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462억원 쏟아붓는다

군산시, 2023년까지 사업 실시 싱크홀 발생 완화 불안감 해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군산시는 지반침하 개선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인한 지반침하를 억제하고 지반 침하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하수관로 정비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시는 내년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을 국비로 확보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4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밀조사가 실시된 노후 하수관로(굴착개량1만5,800m, 전체보수 1만2,145m, 부분보수 2만1,455m)에 대한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이 정비되면 수질오염과 악취 개선은 물론 싱크홀도 방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해상 범죄 밝히는 등불... '과학수사' 떴다

군산해경-전북경찰청, 22일까지 합동 현장실습 운영

바다 경찰과 육지 경찰이 만나 과학수사 기법을 공조하는 합동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군산해경 소속 신설된 과학수사팀 수사요원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과 과학수사기법을 연구하는 합동 현장실습을 9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제자리를 찾은 군산해경은 정보과(정보·외사·보안)를 신설하고 수사과(수사·형사·과학수사) 내 과학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해양범죄 대응의 견결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실시되는 이번 현장실습은 지문과 족적 채취, 혈흔분석 등 과학수사기법 외에도 바다에서 적용 가능한 과학수사 장비활용, 선박 화재감식 등에 대한 실습과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한 범사(變死) 사건의 현장 감시, 해상과 육상이 모두 범죄지로 연계가 되어 있을 경우 합동수사 방안과 과학수사 정보 공조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해경은 최근 선상 폭행과 살인, 보험금을 노린 선박 고의화재, 고가의 선박 장비 절도 등 다양한 해상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해상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부서 이기주의와 할거주의를 벗어던지고 오직 민생치안을 생각하기 위해 바다 경찰과 육상 경찰이 만나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지될 찾은 해경이 실적과 성과위주의 수사보다는 내실을 먼저 다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기틀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야외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로 탈바꿈

군산시, 가을철 활동공간 제공 축구장·농구장 등 설치 운영

군산시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던 야외수영장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15일부터 어린이놀이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군산야외수영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인풀 내에 어린이 축구장 및 농구장, 광장은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인공암장, 미끄럼틀, 볼풀장, 트램폴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설

치하여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야외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아(미취학)는 2,000원 초등학생이상 3,000원의 저렴한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야외수영장 부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야외수영장의 가을철 어린이놀이시설은 9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